

BRIDGESTONE TIRE SALES KOREA LTD.
12F, GS TOWER, 508, NONHYEONRO,
GANGNAM-GU, SEOUL, 06141,
KOREA
Phone: 82-2-3210-2480~3
Fax: 82-2-3210-2488
<https://www.bridgestone->

브리지스톤, 한정판 람보르기니 페노메노의 단독 타이어 파트너로 선정

- 브리지스톤, 람보르기니 '페노메노 Fenomeno'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파트너로 선정
- 브리지스톤이 개발한 페노메노 맞춤형 포텐자 스포츠 타이어, 브리지스톤의 런플랫 기술(RFT) 적용
- 브리지스톤의 혁신적인 '가상 타이어 개발(VTD, Virtual Tyre Development)' 기술 적용해 이탈리아에서 개발 및 생산

서울 (2025 년 8 월 19 일) — 전세계 타이어 및 고무 산업을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위한 제품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브리지스톤이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슈퍼카 '페노메노 Fenomeno'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하는 파트너로 선정됐다. 산타가타 볼로냐 하우스(Sant'Agata Bolognese)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디자인한 첫번째 차량인 람보르기니 페노메노의 제작 20 주년을 기념해 출시되며, 람보르기니의 상징적인 디자인과 브랜드의 독창성을 기념하는 모델로 29 대 한정 생산된다. 최고출력 1,080 마력의 파워트레인을 갖춘 페노메노는 정지에서 시속 100km 까지 2.4 초, 시속 200km 까지 6.7 초의 가속시간을 기록해 람보르기니 모델 중 가장 빠른 모델이다.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기업이 지금까지 개발한 V12 엔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유명한 모델에 람보르기니의 '공식 기술 파트너'인 브리지스톤이 최적화된 맞춤형 타이어를 개발했다. 수십 년에 걸친 모터스포츠 경험과 상징적인 포텐자(Potenza) 타이어 브랜드 라인업의 유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페노메노의 압도적인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리미엄 타이어를 브리지스톤이 개발해왔다.

전륜 265/30 ZRF21, 후륜 355/25 ZRF22 규격으로 제공되는 브리지스톤의 맞춤형 포텐자 스포츠(Potenza Sport) 초고성능 타이어는 고속 주행에서의 뛰어난 안정성과 탁월한 조향 응답성 및 정밀성을 발휘해 1,080 마력을 뿜어내는 슈퍼카 페노메노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페노메노 맞춤형 포텐자 스포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런플랫 기술(RFT)을 적용해, 타이어 펑크가 발생해도 공기압 0 바(bar) 상태에서 최대 속도 시속 80km 로 주행거리 80km 까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또한 람보르기니 페노메노에는 일반 도로 주행 인증을 받은 고접지력의 세미 슬릭(Semi-Slick) 맞춤형 브리지스톤 타이어 장착이 가능하다. 독보적인 슈퍼카 페노메노의 모든 잠재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트랙 주행용으로 개발된 타이어를 20 인치와 21 인치 규격으로 출시한다.

브리지스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법인의 신차용 타이어 영업 부문 라도슬라브 볼코브스키(Radoslaw Bolkowski) 부사장은 “람보르기니와의 오랜 파트너십은 혁신, 우수성, 최고 성능에 대한 공동의 열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페노메노와 함께 하면서 람보르기니 역사상 가장 강력한 V12 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과제가 브리지스톤에게 주어졌고, 브리지스톤이 과제를 완벽히 달성했다. 맞춤형 포텐자 타이어는 일반 도로와 트랙 모두에서 페노메노의 경이로운 성능을 뒷받침하는 제어력, 접지력, 정밀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람보르기니의 크리스티안 마스트로(Christian Mastro) 마케팅 디렉터는 “람보르기니에서 디자인과 성능은 하나이며, 브리지스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하는 파트너”라며 “슈퍼카의 성능에서 타이어는 핵심 요소로 오늘날 자동차 성능 개선의 70%가 타이어 기술 발전에서 나온다. 브리지스톤의 맞춤형 포텐자 라인업은 페노메노가 지닌 놀라운 속도와 힘을 주행하면서 모두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람보르기니 슈퍼카 전 라인업의 단독 파트너

페노메노는 브리지스톤과 람보르기니의 ‘공식 기술 파트너’ 관계 속에서 탄생한 최신 협업 모델이다. 양사의 파트너십이 지속된 5 년간 브리지스톤은 람보르기니의 슈퍼카 라인업 전 모델(우라칸 STO, STJ, 테크니카, EVO, 스테라토, 람보르기니 레부엘토, 테메라리오 등)의 독점 타이어 파트너로 선정돼 왔다.

페노메노 전용 브리지스톤 프리미엄 타이어는 이탈리아에서 개발·생산됐으며, 브리지스톤의 혁신적인 ‘가상 타이어 개발(VTD, Virtual Tyre Development)’ 기술을

적용했다. 가상 타이어 개발 기술로 개발 과정에서 약 200 개의 물리적 시제품 타이어 소비를 줄이고, 실제 차량 테스트를 80%까지 축소하며, 개발 기간을 최대 50% 단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타이어 개발에 소모되는 원자재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60% 절감하는 등 타이어 개발 단계에서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